

1995년도 편집후기

회원, 편집이사, 편집위원, 심사위원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지난 일년간 학회지와 논문지의 발간에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6년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심을 기원합니다.

한송엽 회장님으로부터 '95년도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책무를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학회의 업무중 편집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93-'94년의 편집이사 경험으로 알고 있는 저로서는 고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므로 시간 투자가 어의치 못하여 중요사업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맡게 되었고, 세월은 흘러서 임기가 지났다. 과연 잘했을까 아니면 그르친 일은 없을까 걱정하면서도 책무를 벗게 된 것만 홀가분하게 여겨집니다.

한달에 이사회, 편집위원회 참석을 위해 두번씩 서울을 올라내린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꿈만 같고 시간과 전공지식을 함께 투자해 주신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들께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5년도 첫 편집위원회에서 나온 대로 편집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1) 연간('95.5-'96.4) 특집계획을 연초에 수립
- 2) 전공분야의 세부전공별 심사위원발굴
- 3) 심사기간 단축방안 강구
- 4) 각 연구분야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편집방안
- 5) 논문대상 선정방안 개선
- 6) SCI 가입 추진



이 은 응
(충남대 공대학장)

1944년 8월 14일생. 1971년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83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박). 1982년-83년, 85년-86년 캐나다 McGill대학 방문교수. 1984년-85년 당 학회 대전지부장. 1987년-현재 평의원. 1989년-90년 편수위원. 91년-92년 대한전기학회 학술이사. 93년-94년 대한전기학회 편집이사. 1995년 대한전기학회 편집위원장 및 전기기기연구회 간사장. 현재 충남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및 공대학장.

- 7) 전기관련 6개 학회 공동 영문논문지 발간
 - 8) 매월 게재 논문편수 탄력성있게 운영
 - 9) 연간 발간논문 목차를 12월호에 게재
 - 10) 매월 발간하는 논문지 및 학회지를 그달에 발간
- 이상과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에서 토론하여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한 분의 편집위원에게 특별히 부탁드려 이루어 내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특집내용을 분석하여 특집분야가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연간 특집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위원을 선정하여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추진하였다. 또 과학재단의 인력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얻어 전공분야를 세분할 수 있는 심사위원 선정 자료를 확보했다.

편집위원-학회-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지는 논문심사과정의 정보전달을 FAX를 이용함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논문대상 추천 방법과 선정 방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매월의 논문게재 편수를 22편을 중심으로 탄력성 있게 조절했으며 비록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논문의 국제화를 위해 SCI 가입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전기관련 6개 학회의 편집위원장 모임에서 공동 영문논문지 발간을 12월초로 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어 끝냈었으나 사정으로 발간되지 못하고 '96년초로 연기되어 오는 3월에 첫 창간호가 발간기로 결정되어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런 일이다.

연간 발표논문의 목차 모두를 12월호에 게재하므로 색인하기 편리하도록 했으며 지난 12월호는 학회지와 논문을 12월에 발간하는 계획도 실현해냈다.

한송엽 회장님의 권유로 학회지와 논문지의 국제규격화를 이루어 냈으며, 이를 위해 내가 근무하는 충남대학교의 디자인 전공 교수의 도움을 받아 표지를 변경했고, 인쇄방법을 전

자출판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고를 Disket에 담아 제출하도록 하는 투고요령을 제정해야 했다. 이 일은 컴퓨터 세대가 아닌 내게는 정말로 짐스러웠는데, 다행히도 한 편집위원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었고 내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이 반복작업을 함으로서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논문대상자를 사진과 함께 학회지에 소개하였으며, 지난 2년간의 발표논문의 평균 페이지를 조사하여 5페이지 이하의 논문투고자에게는 싼 게재료의 수혜를 주고 6페이지 이상의 논문 투고자에게는 비싼 게재료를 받던 게재

료 체계를 대부분의 비용을 투고자가 부담하고 학회의 작은 지원으로 발간되도록 조정하였다. 이 일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드려 명쾌하게 제시해 주신 한 편집위원님께 감사드린다.

작은 연구비수혜로 수행한 논문의 게재료가 기본게재료의 50%를 더 부담해야 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논문지 연구분야 명칭을 우리말로 표기되도록 연구회에 권유하는 등의 모든일을 편집위원들의 헌신적인 협조를 얻어 성심껏 수행하였다.

아마도 다시 편집일을 맡는다 해도 더 이상의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것들이었기에 나를 도와주신 모든 편집이사, 편집위원, 심사위원님들께 감사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 편집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오랜 학회업무 수행경험과 편집위원장 역임 경험으로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 박상희 편집담당 부회장님, 모든 일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준 사무국의 진동신 사무국장, 전필준 선생과 지금은 그만둔 신석순 선생께 감사의 뜻을 편집위원회 이름으로 전하고 싶다.